



모든 이에게 건강을



이 순 형

서울의대 학장 · 건협부회장

희망에 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작년과는 달리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크게 발전하여 겨레의 영원인 통일을 이룩하는 한해가 되기를 빌어마지 않습니다. 그리고 작게는 「건강소식」에 독자 여러분과 그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아울러 「한국건강관리협회」 임직원 여러분께도 같은 소망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돌이켜 보건데 「건협」은 지난 30년 동안 국민건강을 위해서 개미같이 땀흘려 봉사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한국기생충박멸협회」로 출발하여 이 땅에 해묵은 풍토병으로 정착해 있던 기생충을 몰아내는데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그 역사적인 쾌거를 학술적 업적으로 바꾸는 큰 일을 해냈습니

다. 그래서 이 학술자료는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세계 여러나라 학자들이 인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 개발도상국가들은 우리의 본을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우리 겨레를 기생충질환의 질곡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기생충으로 인해 우리 겨레가 입은 피해를 학술적인 자료로 보상받는 일을 우리 「건협」이 해냈다고 생각하며 나아가 국위선양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협」은 과거의 업적에만 연연할 수 없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내외적으로 건강에 대한 개념과 기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일찍이 천

“건강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고, 건강에 있어서만은 빈부의 격차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 건설에 이바지한다는 각오를 다짐하자”

명하였듯이 건강이란 다만 질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사회적 안녕상태를 일컫게 되었고 2000년까지 세계 모든 인류에게 건강을 선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국민의 소득이 높아지고 또 교육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질병예방 차원을 넘어 건강을 유지하고 나아가 건강을 증진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려는 크나 큰 욕구가 대두되고 있는 작금입니다.

이와같이 건강에 대한 욕구와 수요가 늘어나는 현상은 우리나라가 선진화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건강문제의 원만한 해결이야말로 복지국가의 국가목표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건강증진법안의 제정도 이런 뜻에서 시의적절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건협」은 이 중차대한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위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에 가일층의 단결과 분발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까지 해왔던 기생충관리사업도 아주 마무리를 지어 이땅에서 기생충을 완전히 몰아내고 재감염의 불씨를 없애야 하며 아울러 외국에서 흘러 들어오는 기생충병을 막는 데도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는 최첨단 의료장비를 보강하면

서 공신력있는 건강검사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방면에서 「건협」직원 여러분의 절차탁마가 요망됩니다.

셋째로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은 보건교육입니다. 앞서 말한대로 건강에 대한 개념이 치료위주에서 예방으로 변화됨에 따라 「건협」의 사업도 구충이나 진단기능을 수행하던 종전의 관성에서 벗어나 그 주 업무가 예방교육, 건강증진교육으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건강소식」지를 통하여 건강에 대한 정론을 계속 홍보하는 일도 중요하겠거니와 특히 향간의 미신적 속설을 바로 잡는 데도 큰 몫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2,000년까지 모든 이에게 건강을」이라는 표어와 같이, 건강을 스스로 지킬 힘이 없는 빈한하고 노약한 소외계층을 먼저 생각하면서 건강의 배분에 있어서만은 빈부격차가 없는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한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건협」 임직원 여러분, 새해 새아침에 이같은 새로운 다짐을 하고 올 한해에도 땀흘려 최선을 다 해봄이 어떠실는지요?